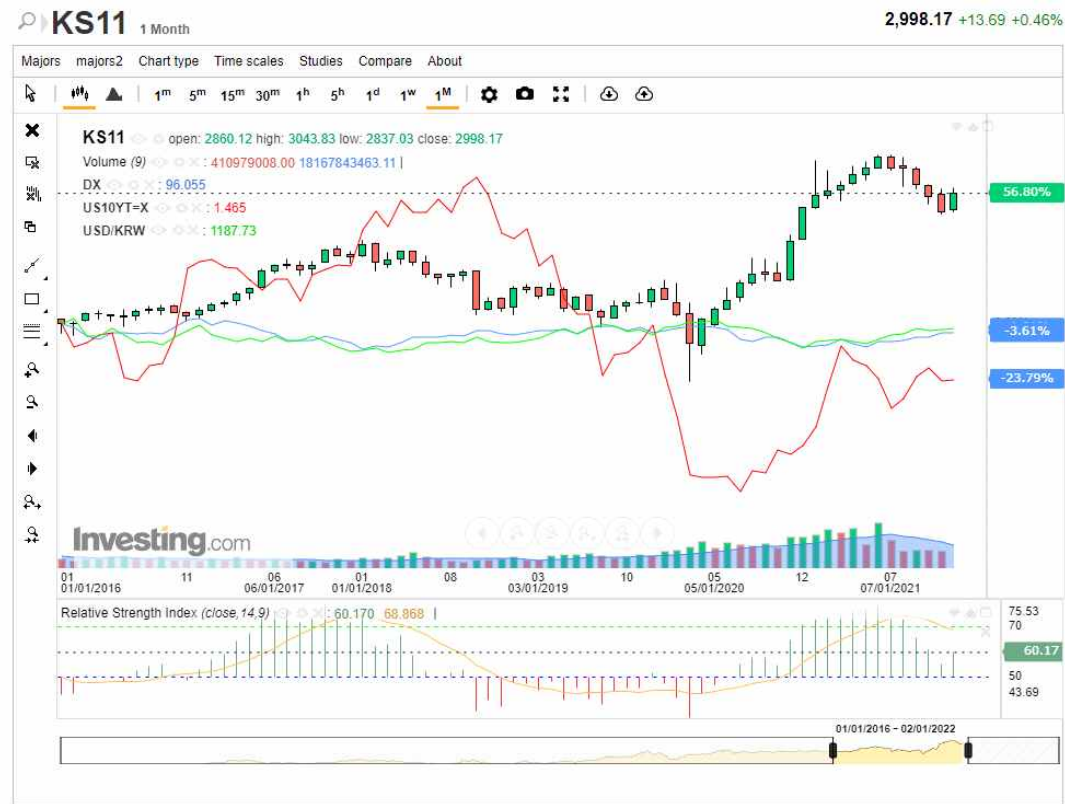


심심한 Insight: 코스피, 달러인덱스, 미 국채 10년물 금리, 달러/원으로 보는 아이디어



[범례]

기 간: 2016. 01. 01. ~ 2021. 12. 23. / 월봉	캔 들: 코스피
파란선: 달러인덱스	연두색선: 달러/원
빨간선: 미국채 10년물 금리	하단차트: 코스피 - 달러인덱스 상대강도

[해석]

2016년~2018년은 미 기준금리 인상기였는데요. 코스피는 지루한 5년간의 박스피 종반부 였습니다. 근데 2016~2018년에 오히려 코스피는 올랐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금리인상기가 끝나면서 미 국채 10년 금리가 오버슈팅 시작했고 코스피도 반락합니다.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이지만(미세하더라도 국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겠지만) 달러인덱스와 달러/원은 오히려 2016~2018년까지 내리다가 오히려 2018년부터 올라가네요 박스권에 있을 땐 달러인덱스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지수가 랠리할 땐 지수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.

[투자 아이디어]

1. 미 10년물 금리는 앞으로 반등하겠지만 금리인상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노이즈일 수 있다. 차라리 달러인덱스를 보자.
2. 하락장, 박스권에서는 달러인덱스 추종 ETF/ETN을 분할 매수하면 지수 롱포지션에 대한 헷지가 가능하다.(그냥 달러인덱스만 모아도 좋을 것 같다.)
3. 달러인덱스 추종 ETF/ETN은 금리인상기 종료 시 까지 양호할 것 같다.
4. 금리인상기가 끝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고개를 쳐 들면 달러인덱스로 모은 달러로 KORU나 QQQ같은 지수를 다시 사자.

[무지성 플레이를 위한 3줄요약]

1. 2022년은 SPY, KORU, QQQ를 달러로 사 모으자.
2. 금리인상기 끝나면(2023년 하반기?) 달러인덱스 추종 ETF/ETN 사자.
3. 그 이후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 오르면 달러 팔고 다시 지수를 사자.